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은 사회 전반적인 변혁의 계기가 됐다. 교육계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은 특이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온라인과 대면 학습의 융합, 자기주도 학습의 실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교육 교육 방법들을 경험했지만 전통적인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실감했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직접 배우지 못한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급격한 저하 현상과 사회계층 간 학력격차의 심화 현상이 교육적 과제로 대두됐다. 기초학력 중에서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전문 방송인 EBS는 지난해 3월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력 문제를 6부작으로 방영했다. 중3학생 10명 중 9명이 혼자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실체는 충격적이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한글을 읽을 수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고, 아이들이 공부할 어려움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줬다. 바로 문해력 문제였다.

한글 전용 둘러싼 논란

교육부도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이 문해력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매년 11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20년 평가 결과를 지난해

전 매 광 장

김승호
세한대학교 초빙교수



문해력 위기와 기초한자 교육

10월에 발표했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중화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했다는 결과에 데이터들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문해력 저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독서량 부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말 한국어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속의 한자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천오백 년 가까이 한자어를 빌어 생각을 주고받았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많은 낱말들은 한자에 기초한 낱말들이다. 한글로 표현된 개념어들의 경우는 대부분 한자어이므로 한자를 알면 개념을 쉽게 알 수 있을뿐더러 같은 한자어로 된 다른 개념어도 쉽게 알 수 있다. 한자를 알고 한글 전용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글 전용과 한자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7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한글 전용을 둘러싼 논란은 흔히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중 하나일 뿐이다. 한자 역시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국어 명사(名詞)의 태반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 한글 전용을 한다고 해서 한자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한글 전용을 하되 기초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기초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책적 추진 시도는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2014년에는 초등 교과서에 기초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자교육 전용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됐다. 진보교육감들이 주축인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한자병기 반대를 결의하고, 이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해능력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우수하며, 한자교육 학습부담 과중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공교육 불신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기초한자 교육 방법 개선

교육부는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사용할 한자 300자(字) 표기 기준을 발표했는데, 전교조 등 일부 교사단체들은 학습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어려운 한자어 낱말을 각주처럼 풀이해주는 것조차 반대한 것은 한글 전용을 이념의 문제로 여긴 결과라 여겨진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는 한자교육 방법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한문이 아닌 한자어 낱말을 읽기 중심으로 가르치면 된다. 한자 풀이가 잘된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쉽게 한자어를 공부하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밝혀진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 실태, 학력 저하의 원인이 문해력 부족이라는 분석, 그리고 문해력은 개념어를 형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한자어 습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해줬다. 이에 2022년엔 한자교육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도 기초한자 학습을 적극 지원해주면 좋겠다.

빨간모자

잡는 게 있었다. 어? 빨간 모자다! 나는 화들짝 반가워 공장 차를 세웠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동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통 안 나오셔서 궁궐했어요.”

그는 구레나룻이 더부룩했다. 얼굴빛이 누리끼리했고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아 보였다. 그는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했다. 팔다 남은 과일을 신고 퇴근하던 밤, 눈은 내리고 길은 미끄러웠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모퉁이를 돌면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사과며 배들이 쏟아져 길바닥에 남지했고 차도 박살이 났다. 그도 크게 다쳤다. 죽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계절 내내 병원 신세를 지고도 아픈 몸은 쉽게 낫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돈만 까먹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웬만하냐 싶어서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누워 있다고 해결이 되나요? 움직여야 살지요.”

그는 다시 거리의 풍경이 되었다. 나는 지난 때마다 버릇처럼 그쪽을 돌아보곤 했다. 그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처럼도 느껴졌다. 그는 졸고 있길 일

주었다. 앉아서도 졸고 길가에 받쳐 둔 트럭 안에서도 졸았다. 옹크린 그의 몸은 한없이 초췌해 보였다. 그가 호객을 하거나 상한 과일 파우를 골라내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다. 졸고 있는 그를 깨우기도 주저될 때가 많았다.

다시 겨울, 오늘도 그는 과일을 팔고 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빨간 모자가 씌워 있다. 나는 그의 모자가 보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안됐다 싶기도 하다. 산다는 건 시시포스처럼 끊임없이 돌을 굴러 올리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올라가야 할 산정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다름짓 헛바퀴 돌리듯 20년째 과일 파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팔아야 할 과일이 있다는 건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 시방 그의 모자가 유난히 돋보인다. 새뜻하고 짙은 빨강이 눈에 확 들어온다. 모처럼 새 모자를 샀나 보다. 머리에 쓴 모자가 칸나보다 더 붉다. 때마침 한 사람이 멈춰 섰다. 그는 냉큼 손님에게로 달려갔다. 봉지 가득 과일이 담기고 그가 환하게 웃는다.

는 주차 자세는 삼가야 한다.

운전만 잘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사회를 먼저 생각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타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주차 문화는 곤란하다. 성숙한 주차문화로 공체 동사회를 먼저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기대해 본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사 설

지방대 위기 이대로 둘 것인가

지방대학의 위기가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신입생이 줄어들어 많은 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고 지방대학의 자구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예과와 치의예과 등 전통적으로 강세인 일부 학과를 제외한 상당수 학과에서 모집정원 충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대학별 격차가 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 전남대는 3.92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3개과는 미달이다. 광주대는 0.82대 1의 경쟁률로 3개 과를 빼고 나머지 학과는 미달이다. 호남대도 0.9대 1 경쟁률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달이다. 동신대도 의료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정원 미달이다. 반면 올해 처

음으로 신입생을 뽑는 한전에너지공과대는 무려 9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학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갈수록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견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학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대학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드는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 평생교육원처럼 더 배우고 싶은 50~70대를 위한 학과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잘 나가는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지원을 줄이고 지방대에 대폭 늘려야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지방을 살리려면 청년들이 지방에 많아야 한다. 지방대학부터 살려야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 것 아닌가.

‘이·이 원팀’ 비전 실행능력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보란 듯 민주당 심장부 광주에서 원팀 행보를 전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 손을 맞잡고 참석했다. 이른바 뒷밭에서 화학적 결합의 원팀 행보다.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저동성을 강조하고, 상생 일자리 노동자, 문화예술인, 농민 등의 의견을 들으며 국가 비전·통합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호남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총결속과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낙연 비전위 위원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

에 함께하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해야 한다”며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 길을 광주·전남도 함께 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출범 이후 네 번째 만남을 갖고 ‘불편한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맞손은 화학적 결합이란 정치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광주와 호남지역민들은 제시한 국가 비전과 통합 메시지를 실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전남의 신해양 친환경 수도 건설, 동아시아 에너지 허브 조성 등에 대한 지원과 비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레야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

여전한 직장 갑질 개선 시급

기지수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여가 됐지만, 직장인들이 느끼는 갑질 수준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계속된 갑질 금지법 처벌 강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아 한 차례 개정됐다. 이 역시도 과태료 처분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33.0%에서 32.5%로 비슷했다.

특히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5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7,342건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한 괴롭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10건 중 7건은 그냥 취하되거나 단순 종결 처리됐다. 솜방망이 처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규모 업장, 인적 드문 시설 등 사각지대는 갑질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주연
제2사회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안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고통을 겪는다 못해 죽음에까지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는 사례를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소한 심부름부터 업무적인 부분까지 천차만별이면서, 사립마다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그렇다’ 하거나 있는 지침과 법.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지금이라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회사가 함께 힘써야 한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도 없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엄중한 조치로 사회의 갑질 행각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다.

에 세 이



김향남
수필가·문학박사

우리 동네 과일 파는 아저씨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이 동네가 막 생겼을 때부터였으니까 올해로 근 20년이다. 그는 변함없이 길거리 노점에서 과일을 판다. 계절에 따라 종류는 달라져도 머리 위의 모자는 언제나 한가지다. 내가 아는 한 그는 한 번도 다른 색깔의 모자를 쓴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벗은 적도 없다. 빨간 모자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과일에 관한 한 그는 자타 공인 전문가다. 작은 키와 다부진 체구,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그가 파는 과일들까지 아무저 보이게 한다. 그가 골라주는 과일은 정말

로 맛도 좋다.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다. 머리 위의 빨간 모자와 기온찬 음성과 상큼한 과일들의 조합. 그를 믿고 찾게 되는 이유다.

그가 장사를 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말 하루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 아파트를 나와 상가 쪽으로 가면 덩치 큰 빌딩들이 우람하게 서 있고, 그 아래 인도에는 노점들이 즐비하다. 그는 빌딩 벽을 배경으로 벽화처럼 존재한다. 그는 살아있는 그림이다.

어느 날, 문득 그 자리가 행해 보였다. 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뭔가가 빠진 듯 허전해 보이는 것이다. 뭘까? 아, 그러네! 나는 단박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일까? 나는 바지런히 주변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혹시 다른 데로 간 걸까? 더 목 좋은 곳을 찾아서?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라도 생겼나? 아무리 고개를 가웃거려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겨울이 가고 봄벌 따스한 날, 차를 타고 근처에 새로 생긴 쇼펄센터에 가는 길이였다. 사거리를 지나는데 문득 눈길을 볼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여서 운전자 상호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이나 상가앞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아파트 내 주차장에 서도 주차 차량의 앞이나 뒤쪽에 이중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연락처가 없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아 움푹딱딱 못하게 하면서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차를 빼달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고성이나 오기도 한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주차공간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차량 주차 시 연락처를 남겨놓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경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전화광 010-5601-2219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E-mail jnm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